



'웃는남자' 공연 사진.

올해를 빛낸 최고의 뮤지컬 '웃는남자'

한국뮤지컬어워드 최다 부문 후보에 올라... 11개상에 13회 노미네이트

제3회 한국뮤지컬어워드에서 뮤지컬 '웃는남자'가 최다 부문 후보에 올랐다. 조직위원장이 이우리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과 후보추천위원장이 유희성 서울예술단 이사장이 지난 27일 공개한 후보 명단에서 EMK 뮤지컬컴퍼니의 '웃는남자'가 11개상에 13회 노미네이트됐다.

400석 이상 공연장에서 공연된 창작 초연에 한하는 한국뮤지컬어워드대상을 비롯해 뮤지컬작품상, 남우주연상(박효신), 남우조연상(정성화), 여우조연상(신영숙), 남자신인상(엑소 수호), 프로듀서상(엄홍현) 등 대다수 주요 부문 후보에 올랐다.

이와 함께 극본상(로버트 조렌슨 & 잭 머피), 음악상(김문정·프랭크 와일드혼), 연출상(로버트 조렌슨), 무대예술상(구윤영·오필영) 등에도 후보로 지명됐다.

특히 음악상과 무대예술상 각각에 음악감독 김문정과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 무대예술상에 조명디자이너 구윤영과 무대디자이너 오필영 등 2명씩의 후보를 냈다.

'웃는남자'는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동명 작품이 원작이다. 신본 차별이 극심한 17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웃는남자' 그윈플렌의 여정을 그린다. 제작비 175억원을 투입했다. 지난달 제7회 예그린 뮤지컬어워드에서도 '올해의 뮤지컬상'을 비롯해 7관왕을 차지하며 주인공이 됐다.

이번 한국뮤지컬어워드 대상을 놓고 '웃는남자'와 함께 '1446' '모래시계' '신홍무관학교' '햄릿: 얼라이브'가 격돌한다.

창작과 라이선스 공연을 통틀어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는 뮤지컬작품상을 두고는 '웃는남자' 외에 '레드북' '마틸다' '빌리 엘리어트' '젠틀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편'이 경쟁한다.

400석 미만의 공연장에서 공연된 창작과 라이선스 공연에 한하는 소극장뮤지컬상은 '벵큐 베리 스트로베리' '베르나르다 알바' '빈센트 반 고흐' '오늘 처음 만드는 뮤지컬' '용의자 X의 현신'이 후보로 지명됐다.

가장 관심이 큰 '남우주연상'을 놓고는 강필석(번지점프를 하라), 박은태(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박효신(웃는남자), 조승우(지킬앤하이드), 최재림(마틸다)이 겨룬다.

여우주연상에는 아이비(레드북), 유리아(레드북), 전미도(닥터 지바고), 정영주(베르나르다 알바), 차지연(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이 노미네이트됐다. 특히 주로 조연상 후보였던 정영주가 올해 하반기 화제작 '베르나르다 알바'로 주연상 후보에 올라 눈길을 끈다.

남우조연상을 놓고는 강필석(닥터지바고), 김봉환(지킬앤하이드), 이규형(젠틀맨스 가이드), 정성화(웃는남자), 한지상(젠틀맨스 가이드)이 경쟁한다. 강필석은 '번지점프를 하라'로 주연상 후보에도 지명됐다. 여우조연상을

두고는 김국희(레드북), 김영주(빌리엘리어트), 방진의(마틸다), 신영숙(웃는남자), 최정원(빌리엘리어트)이 겨룬다.

2018년 1월 이후 데뷔한 배우 중 주연 또는 조연이 대상인 신인상 중 남자 부문은 수호(웃는남자) 외에 신주협(어쩌면해피엔딩), 이승현(마마돈크라이), 이휘종(번지점프를 하라), 브라더스 가라마조프, 하경(마마돈크라이)이 후보가 됐다. 여자신인상을 놓고는 강혜인(어쩌면해피엔딩), 김환희(베르나르다 알바), 이혜수(신과 함께: 저승편), 임차민(신홍무관학교), 해나(지킬앤하이드)가 경쟁한다.

프로듀서상에는 '웃는남자'의 엄홍현 EMK 뮤지컬컴퍼니 대표 외에 '행보'의 강병원 라이브 대표, '젠틀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편'의 김영욱 쇼노트 대표, '마틸다' & '빌리엘리어트'의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 '오늘 처음 만드는 뮤지컬'의 정인석 아이엘컬처 대표가 후보로 지명됐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작품이 기준이다. 공연일자 14일 이상, 공연회차 20회 이상 유료 공연된 창작과 라이선스 초·재연작이 대상이다. 전문가 투표단 100명과 마니아 투표단 100으로 심사위원단을 꾸렸다. 투표비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전문가 투표단 80%, 마니아 투표단 20%로 반영한다.

한국뮤지컬협회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뮤지컬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뉴시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에 정성숙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에 정성숙(60) 제주국제대 실용예술학부 특임교수를 임명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정성숙 신임 이사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살풀이춤, 안성향당무 이수자로, 강남문화재

단 강남전통예술단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현재 이화예술단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전통예술 분야 전문가다.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전통예술 발전과 진흥을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된 문체부 소속 산하기관이다.

문체부는 "정성숙 신임 이사장은 앞으로 전

통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예술 분야 활성화와 재단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도내 여성교육 상징으로 자리매김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장 이영희)는 성인여성들의 꿈을 실현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자치체가 운영하는 정규학교로 지난 20년간 만화(晩學)의 꿈에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제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여 전북여성교육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성인 학습자의 특성 및 개인차를 고려한 학생중심의 교육을 통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분위기 조성하고 학생중심의 '학사운영 만족도', '교과 만족도 조사' 조사를 실시하여 피드백을 통한 양질의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하고, 5년 연속 학사운영 만족도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1998년 3월 개교이후 꿈과 행복이 넘치는 평생교육의 이념으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2018년 2월 제18회 졸업생까지 1,320명(중 689, 고 631)을 배출하고 전북여성교육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2019년 1월 31일 졸업식에는 제19회 졸업생 63명(중 26, 고 37)에게 그 간 학업성취 노력

을 격려하고 졸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졸업생의 70%인 920명(고등학교 543, 대학교 375)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였고, 또한 대학졸업 후 정치,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에 성공하여 자신의 꿈을 펼쳐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2018학년도에는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를 비롯해, 한일장신대학교, 비전대학교, 군장대학교에 14명의 예비합격자가 배출되었다.

학교정규 교육과정과 더불어 1인 1특기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진학과 창업 준비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한식 조리기능사, 한자지도사, 컴퓨터 등 자격증과정을 운영하여 매년 90여명의 학생이 자격증을 취득 하고 있다.

2018년에는 직업전망이 높은 건강관련 자격증 반 확대운영과 방학 중 특별반 운영으로 자격증 취득자가 증가했다. 자격증취득은 110명으로 디지털정보활용, 노인심리상담사, 요양보호사 등이다. /김진성 기자



근현대기록관 남원다움이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남원의 이야기

근현대기록관 남원다움, 내년 상반기 개관 목표

남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시민의 추억이 담긴 근현대기록관이 들어선다. 남원시는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건물과 전시관 등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근현대기록관 남원다움은 총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남원 금동 고생 지구에 지상 2층에 연면적 671.67㎡ 규모로 신축되고 있다.

이곳에는 책으로 둘러싸인 근현대북카페와 과거 행정을 체험하는 공간 나도 공무원, 근현대생활사를 전시·체험하는 공간의 기억 등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갖춘다.

남원시는 이곳의 전시 구성을 위해 남원 역사와 시민기록물 등을 수집해왔다. 또 구도심기록화조사를 진행해 총

3차례 자료집(금동·동충동·죽함동)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이야기를 모아 왔다. 특히 남원다움이 건립될 고생지구는 연중 맑은 물이 솟아나는 고생과 남원 구도심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 중인 곳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또 남원의 관광랜드마크인 관원루원~남원예촌~고생지구~구도심~남원읍성~만민의총~교동산성을 연결하는 관광거점지역이기도 하다.

이휘주 남원시장은 "앞으로 산재한 남원의 역사와 기록을 발굴해 과거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남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살아있는 근현대기록관 남원다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